증시 동향과 전망

朴 鍾 坤*

증시 주변 여건 악화에 따른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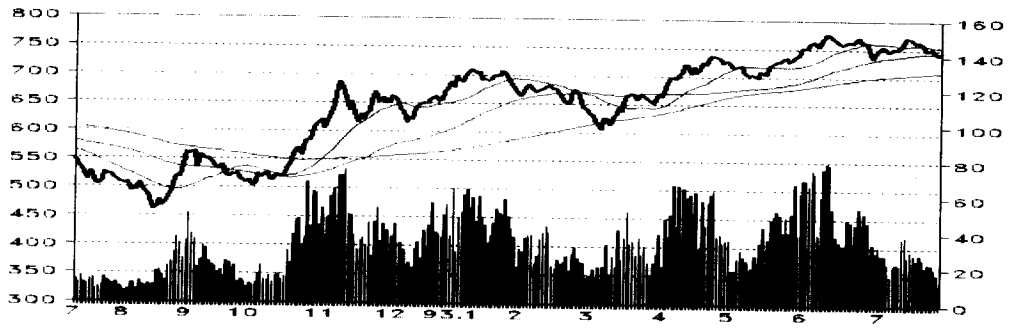
지난 6월 중순이후 7월까지 각종 증시 주변의 악재가 가시화 되면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조정 장세를 보였다. 북한의 핵사찰에 대한 미·북한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금융 실명제 조기 실시설 및 현대 그룹의 노사분규, 시중 자금사정의 악화 등이 증시 침체의 주된 요인으로서 작용했다. 또한 금년들어 국내 경기의 상승을 주도해 왔던 중국 특수가 한풀 꺽이면서 수출 증가율의 감소와 이에 따른 실물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시장 심리를 지배하였다. 7월 중순 이후에는 공직자의 재산 공개 및 사채시장에 대한 제2차 사정설 등 지속적인 신정부의 사정활동이 침체 증시를 더욱 하락세로 몰고 갔다.

매수 타이밍 포착이 중요

최근 증시의 조정 국면이 과연 지난 1년간 상승 싸이클의 종료로 이어질 것인가? 증시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도 금번 증시 침체가 금년 하반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전체 장세 기조를 하락세로 이끌만한 증시 기본 환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번 증시 조정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

우선 단기적인 증시 전망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종합주가지수 그래프는 지난 6월 초에서부터 7월 초까지 쌍봉형을 그리면서 하락 커브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92년 8월 이후 장기 상승 곡선상에서 보면 이번 쌍봉형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나타난 것으로 장기 증시 침체를 예고하지는 않는다.

종합주가지수 / 거래량(백만주)



* 책임연구원, 경영학 석사, 증권·금융 전공

증시 하락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이동평균지수와 종합주가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7월 22일 종합주가지수가 75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여 150일 선을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7월말 또는 8월 초에 이르러 종합지수가 150일 선(약 720)까지도 이를 것으로 보인다. 종합주가지수가 150일 선에 근접하면 지수 720 - 730 포인트 사이에서 6일, 25일 및 75일 선 등이 서로 밀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적 지표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었을 때 주가는 크게 움직인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 정설에 의하면 8월 초 이후에는 증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든지 아니면 더욱 하락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현 장세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8월에는 증시 주변 악재의 해소와 경기 회복의 지속을 전제로 할 때 주식시장의 하락 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의 증시 조정 양상이 지난 2월의 증시 조정기와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수 타이밍을 적절히 잡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실적 호전주와 EXPO 관련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8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반기 실적이 속속 발표되어 그동안 루머로만 떠돌았던 기업 실적이 가시화 되는 달이다. 이미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알려졌던 기업의 주가가 지난 6월까지 상승했으나 8월에는 이들중에서도 옥석이 가려짐으로써 주가 재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순이익 증가 기업보다는 매출액 및 경상이익이 크게 호전되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하반기 기업 실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실적 호전주에 대한 투자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중국 특수와 선진국으로부터 수요 증가로 매출 급신장이 예상되는 철강,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에는 대전 EXPO가 개최되는 달이기도 하다. EXPO에는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EXPO 개최에 따라 수익 신장으로 직접 연결될 사업은 운수, 식료, 숙박업이 될 것이다.

또한 8월에는 전반적으로 대형 제조주 및 금융주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증시의 기술적 반등과 함께 기본적 측면에서도 6월과 7월의 자금사정 악화가 8월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되며(18.5% 유지시 → 일평잔 약 2,400억 원 여유), 한동안 일본의 정계 불안으로 약세를 보였던 엔화도 7월 중순 이후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엔화의 상승은 국내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기 회복의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8월에는 전체적으로 주식 보유 규모를 확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구성은 실적 호전주와 EXPO 관련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